

## 한국경제학회,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육

이 현 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이 글은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계의 세대 간 간극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경제학 원로 석학과의 대화 제4회 행사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제4회 경제학 원로 석학과의 대화는 이지순 학회장(제45대)과 이현재 원로교수와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담은 2015년 12월 7일 이현재 명예회장의 연구실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국경제학회의 초창기 역사,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 한국의 대학교육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및 정리: 이지순, 제45대 한국경제학회장

### 한국경제학회 초창기 모습

**질문)** 선생님께 먼저 한국경제학회의 초창기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선배교수님들이 한국경제학회를 설립하고 첫 사업으로서 학술지인 경제학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한국경제학회 창립 시기인 1952년에 나는 아직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학회 사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지 못해요. 다만 신태환 선생님과 최호진 선생님 등이 전쟁의 초화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경제학회가 있어야 하겠다는 뜻을 세우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경제학회를 창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지순 학회장이 말한 대로 1952년의 일인데 국가의 존망이 달린 6.25 참화 속에서 학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대단한 공로입니다. 학회가 60주년을 지나 이제 70주년을 향해 순항 중인 것은 여러 원로 선생님들의 해안과 노력 덕분이라고 봐요.

**질문)** 초창기 한국경제학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한국경제학회와 인연을 맺으셨는지요?

**답변)** 음,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한국경제학회는 초대회장으로 당시 최고 원로이던 신태환 선생이 취임하신 이후 제2대 회장부터는 여러 해 동안 같은 분이 계속해서 회장을 맡으면서 사적 학회 같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나는 학생 신분을 벗어나면서 학회의 회원이 되었으나 앞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질문)** 선생님이 재직 하시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경제학회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까?

**답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적었고 아마도 처음에는 강명규 교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경제학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학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국경제학회를 어머니 학회 즉, 모 학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그러한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역대 회장들이 학회를 혁신하기 위해 헌신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1960년대 초반을 회고해보면, 한국의 경제나 경제학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학회를 운영하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최호진 선생도 당시의 학회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최 선생이 고려대에 계신 김준보 선생에게 회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오랜만에 회장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김준보 선생은 수원고등농림학교 (지금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출신이며 일본에서 수학한 분인데 고려대 경제학과에 원로이셨지요. 그분이 학회장으로 있을 때 같은 학교의 곽상경 교수가 사무국장으로 회장을 돕고 있었는데 그이도 한국경제학회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욕이 컸어요. 그래서 곽 교수가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박재윤 교수에게 이 일로 상의하면서 학회를 혁신하는 일에 서울대학교가 앞장 서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박 교수도 평소 학회 운영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학회를 개혁하는 일의 선봉장이 되었어요. 박 교수는 추진력이 아주 강한 인물이지요. 그가 내게 그런 뜻을 전하면서 내가 학회장을 맡아서 학회와 후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랐지요. (이 부분은 대담 자리에 동석했던 서울대학교 정기준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반영해서 작성한 것임.)

선배 학자가 많으신데 내가 나선다는 게 저어되어서 여러 번 고사하다가 회장직을 맡았어요. 학회장직을 맡은 후 나와 사무국장으로 일한 박 교수가 학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에요.

몇몇이 모여 호선으로 뽑던 학회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고,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신설해서 제1회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지요. 학회의 상주 사무실도 대한상공회의소 정수창 회장의 호의에 힘입어서 송례문 앞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내에 개설했고 전국의 모든 경제학자의 회원가입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연부역강(年富力強)한 젊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청람상(靑藍賞)을 제정한 것도 큰 보탬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 답변)** 선생님이 말씀하신 청람상은 아주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상을 받은 학자들이 우리 학계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어 든든합니다.

**답변 계속)** 참,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들은 전부 다 학회 회원인가요? 아니라면 가입을 독려해 주기 바라요. 소속 교수가 학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료들이 회원이 아니라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 1945년 8월 이전의 경제학계

**질문)** 해방 이전 그러니까 1945년 8월 이전의 한국 경제학계는 어떤 양상을 지니고 있었나요?

**답변)** 해방 이전 시기의 경제학계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이 어떤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현재의 명문대학의 전신인 전문학교들이 몇 개 있었으나 그들은 구제 고등학교나 대학 예과와 수학 연한이 같은 초급 학교로서 정규 대학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대학은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3년제 예과 부설) 하나뿐이었지요. 경성제대의 정원은 법문학부(3년 과정) 80명, 이공학부(3년 과정) 80명, 의학부(4년 과정) 80명 등 도합 240명이었는데 한국인은 그 4분의 1인 60명까지만 입학할 수 있었지요.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대학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청운의 꿈을 품은 많은 수의 조선 젊은이들이 일본 유학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조선에는 전문학교가 관립으로 수학 연한 4년제의 경성 의학전문학교, 수학 연한 3년제의 경성 공업전문학교, 경성 광산전문학교, 경성 경제전문학교, 수원 농림전문학교, 경성 법학전문학교, 부산 수산전문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공립으로 수학 연한 4년제의 평양 의학전문학교, 대구 의학전문학교, 함흥 의학전문학교, 광주 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사립으로는 3년제의 경성 약학전문학교, 연희 전문학교, 보성 전문학교, 명륜 전문학교, 대동 공업전문학교, 이화 여자전문학교, 숙명 여자전문학교 그리고 4년제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경성 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당시 고등교육기관은 고급 기능인을 양성하는 데 치중했어요.

경제학 분야에 대해서 보자면, 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던 조선인 경제학 교수는 경성제대에 조수 한 두 명, 연희전문과 보성전문 상과 소속 경제학 교수 몇 분이 전부였습니

다. 따라서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학문 풍토나 학계가 형성될 만한 토양이 매우 척박했어요. 무엇보다도 경제학 인구가 극소수에 불과 했거든요. 지금 손가락으로 꼽아 보아도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였지요. 연희전문의 백남운, 신태환, 이순탁 이런 분들이 금방 떠오르는군요.

**질문)** 그 분들에게서는 모두 일본에서 공부 하셨나요?

**답변)** 거의 전부가 일본이지요. 그 때야 구미 국가로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때지요. 정보도 없고 재력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일제의 학제 하에서 공부했으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질문)** 저희가 흔히 듣기로는 경성고상(京城高商)이 서울대학교 상과 대학의 전신이라고 하던데 고상 출신 분들 중에서 공부를 계속한 사람은 많이 없나요?

**답변)** 서울 상대의 전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가끔 논의가 있곤 한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립 서울대학교를 발족할 때 경성제국대학(그 안에 정식 학과는 아니지만 경제학 전공이 있었어요)과 모든 관립 전문학교 그리고 경성 약전과 경성 치전 등 두 사립 전문학교를 종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누가 전신인지 따지기가 어렵지요. 경성제대라고 볼 수도 있고 경성고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고상 얘기가 나왔으니 예컨대 신태환 선생도 고상 출신으로서 고상을 거쳐서 동경 상대를 나오셨어요. 같은 과정을 밟으신 분으로서는 재정학 및 회계학을 공부하신 이해동 선생이 계시네요. 고상 출신은 아니지만 경제사의 백남운 씨와 서울 상대에 재직하던 유진순 교수 그리고 이정환 전 연대 교수도 동경 상대 출신입니다. 고상은 전문학교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학부인 셈이지. 고상 학생도 대부분 일본인이었어요. 한국인을 많이 받지 않았던 겁니다. 동경 상대는 전후에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으로 개편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의 동경대학 경제학부는 당시 동경제대에 속했고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학부는 전전에는 동경 상대로서 쌍벽의 명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두 학부 간에는 미묘한 경쟁의식이 있어요. 동경 대학 경제학부가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학부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지요. 동경 대학 경제학부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주도 했었던 데 반해서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학부는 일본인이 말하는 소위 근대 경제학자가 주도해왔어요. 서구에서의 평가는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학부가 높았던 적이 많습니다.

**질문)** 일제 강점기 때의 학문 상황에 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답변)**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 도서 중 학문의 역사와 관련된 서적을 전시하고 있어

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고 처음 안 것인데 구한말 고종황제가 서양 학술 서적의 중국어 번역서 구입을 크게 장려 했더군요. 서양 학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다는 방증이지요. 규장각에서 그 때 구입한 서적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경제학 책도 있어요.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저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경제학설사를 전공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홍기현 교수에게 물어보니 그가 찾아보고 알려 준 바로는 훌륭한 업적이 많은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종황제는 많은 수의 선진 저서들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려고도 시도했어요. 이것을 보면 당시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구한말에 규장각 외에 장서각도 운영했는데 규장각 도서는 서울대학교로 그리고 장서각 도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옮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준 교수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작성한 것임.)

**질문)** 그럼 고종황제가 서양문물을 받아 들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군요. 우리는 당시 조선의 지도자들이 안목이 부족해서 서양 선진국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양 오랑캐 즉, 양이(洋夷)라는 말만 듣고 자랐거든요.

**답변)** 이 회장 세대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조상들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일신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런 시도도 많이 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천주교 즉, 서학을 들여온 것도 그런 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기 천주교 지도자들이 충효를 중히 여기는 조선의 유교 윤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는 바람에 좋을 기회를 잃었다고 해야 하겠지요. 고종이 정사를 보면서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인데 일본이 조선보다 앞서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여서 강대국으로 커가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이 일제에 병합되는 바람에 자력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 모두가 어리석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임금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정세에 밝지 못했고 국가의 문을 열었다가 혹시 외세에 점령당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해서 국문을 결집하는데 실패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구한말에 관해 연구한 역사학자들 중에는 고종이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한일합방을 반대했고 이준 열사를 파견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지요. 그러나 국운이 기울었는지 그의 신하 중에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겨주자는 자가 득세하게 되었고 일제에 대해 전혀 무기력했던 순종이 즉위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를 잃고 말았지요.

## 대한민국 건국 초창기의 경제학계 상황

**질문)** 저희가 듣기로 해방 공간 당시 국립대학을 설립할 때 그리고 해방 공간 전체를 통해서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상과 대학에서는 좌우간의 이념 투쟁이 아주 극렬하게 전개되었다고 하던데요.

**답변)** 이념 투쟁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인 시대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침략기를 벗어나자 말자 남한에는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 군대가 그리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군대가 진주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으니 각 분야에서 이념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학원도 이러한 이념 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요. 아니 오히려 학교이니까 더 심했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 상대에서 이념 투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봐야 하겠지요. 당시 상과 대학에 몸담고 있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를 비롯해서 좌익 성향의 교수들은 모두 월북했어요. 초기에 상과 대학에 몸 담았던 전석담, 허동 교수 등이 월북인사들입니다. 당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유물사관에 바탕을 둔 조선경제사 관계 논저가 많이 나왔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교수들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하는데, 이 회장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나요? 틀림없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수행 교수라고 여기지요? 틀렸어요. 해방 공간 때 전석담, 최영철 그리고 허동 씨가 자본론을 처음 번역했어요. 얼마 전까지 내가 그 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어요. 내가 최근에 평생 아껴오던 책들을 모두 그곳에 기증했어요. 그곳에서 특별 서고를 두고 잘 관리해서 유용하게 쓰겠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질문)** 네, 저도 정년퇴임하면서 연구실에 갖고 있던 책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받아줄 데가 없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해서 꼭 필요한 책만 제가 갖고 중국 요녕대학 한국 연구소와 베트남 대학에 나누어서 기증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책보다는 전자 매체를 통해서 읽는 것을 선호하니까요. 참, 제가 뿌리를 너무 모르는데, 상과 대학이 생긴 건 언제예요?

**답변)** 좀 전에 말한 대로 해방 후 국립서울대학교를 신설할 때 서울대학교 상과 대학이 설립되었어요. 일본인이 세운 고등상업학교가 해방 직전에 경제전문학교로 개명되었다가 국립대학 신설에 맞춰서 국립 서울대학교 상과 대학으로 된 것이예요.

**질문)**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겠네요.

**답변)** 말할 것도 없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보다도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고 잦은 동맹휴학이 뒤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될 즈음 6. 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질문)** 일제 강점기에 학문 활동을 시작해서 해방공간을 거치고 우리나라가 국가의 정체성을 굳혀가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이상 우리 경제학계의 최고 중진으로 활약하셨던 분이 신태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 선생께서도 우리 학회장을 역임하셨나요?

**답변)** 이런, 학회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요. 바로 우리 학회의 초대 회장이셨어요. 1952년에 학회가 생겼으니 이 회장이 잘 모를 만도 하지요. 당시 학계의 제일 큰 원로가 신태환 선생이 있었어요. 선배 중 많은 학자들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월북 했지요. 당연히 가장 존경 받던 선배 격인 신태환 교수가 학회장을 맡게 된 것이지요. 학회 설립을 주도했던 한 분인 최호진 선생께서 신태환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학회장이 되셨지요. 최호진 선생이 학회장으로 십 년 이상 재임했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아요.

##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변화 양상

**질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학의 학문적 변모과정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주로 일제 치하의 조선에서 공부하거나 일본에 가서 공부한 분들이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경제학계의 학문적 영향이 컸겠지요?

**답변)** 그렇지요. 당시 한국의 경제학자는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본에서 공부한 인사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 거의 전적으로 일본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 회장도 들어서 알겠지만 당시 일본 경제학계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영향이 매우 컸었지요. 종전 이후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 영향을 받으며 공부한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상당수가 마르크스 사상에 경도된 것은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학계의 주도 세력이 해방 이후 이제까지 몇 단계로 변화해왔는가 하는 글을 쓴 게 있어요. 첫 단계가 일본에서 공부한 인사들이지요. 사실 60년대 중반까지는 그 인사들 밖에는 인적 자원이 없었으니까요. 이 분들을 해방 후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학계를 주도하던 제1세대라고 규정해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일본에서 공부했던 교수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말하자면 제2세대이지요.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예요. 아마 이 회장 세대에게 대학 재학 중에 배움을 전수해준 분들 거의 모두가 당시에 대학교육을 주도하던 제2세대였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3세대는 이승만 박사 덕으로 미국을 위시해서 서구에 유학해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사람들이지요. 참, 왜 이승만 박사 덕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가 배일 정책을 펴면서 한국인들의 일본 출입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구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대종은 미국이지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대학교육 담당 제3세대가 된 것이지

요. 이 제3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마침 집권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두뇌환류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거든요.

대학교육 담당 제4세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학길에 올라 해외의 우수한 대학에서 학문을 수련하고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루어진 세대이지요. 이 회장이 바로 이 세대에 해당되겠지요. 논란은 있겠지만 지금 학계의 주도 세력이 바로 제4세대라고 봐요. 제3세대가 가르친 국내 학위 취득자들도 제4세대의 중요 요원으로 활약 중인 것을 보면 우리 학계가 그 동안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학문 분야에서도 그 동안 수입과 수입대체에 치중했다면 이제 우리 학문 특히 경제학도 ‘수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나라 학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지요. 많은 수의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학문의 수출에 해당합니다.

**질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답변)** 경제학계의 학자 구성도 위에서 내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지요.

**질문)**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나라 학문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학문의 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논문이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어 인용되는 것을 보거나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획득하는 특허 수가 세계 몇 등 안에 드는 것을 보면, 학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문 제4세대 즉, 현재 세대 원 중에서는 소위 경제학의 대가라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변)** 그거 이 회장이 너무 학문 수준을 높게 잡고 있거나 동료들이나 후배 학자들에게 대해서 기대가 과도하게 큰 것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수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업적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희소하니까 대학교수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과 대학교수가 대폭 늘었거든요. 더 이상 희소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또한 수요가 늘다 보니 개중에는 대학교수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수도 하나의 직업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수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학문의 선구자이며 학문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다 사라진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는 예전의 잣대로 대가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또 예전의 대가라는 분들도 희소 자원이 누리는 특권 소위 ‘경제지대’를 누렸다고 해야 하겠지요.

**질문)** 선생님 말씀대로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자기가 하나의 직업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월급 받는 만큼 일하면 된다, 아니 월급을 조금 받으니 조금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 작금의 경제학 학문 풍토에 관하여

**질문)** 위에서 여쭙어 본 것과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요즈음의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의 문제에 관해 너무 모르며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훌륭한 스승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느냐는 질책을 듣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으니 그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학회장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한 마디도 안 하느냐는 꾸지람이지요. 뭐가 잘못 된 것일까요?

**답변)**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 화끈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학자들을 믿어요. 그들이 하는 학문 수준은 우리 세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지요.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요. 더구나 경제학은 높은 정치성(精緻性)을 요구하는 학문 이잖아요? 우리 사회 그리고 경제학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뭉쳐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것들이 정책화가 되어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보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의 시안을 만들 때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가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장이 말하는 대가라는 게 무어예요? 역사상에서 진정한 대가는 많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대가로 추앙 받는 분 중에는 자기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고 해서 대가는 아니라고 봐요. 이 회장 같은 분이 그런 대가부재론(大家不在論)에 동조하면 안 되지요. 후배들에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분야에서 차근차근하게 학문적 성과를 쌓아 나가도록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며 잘 모른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듣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봐요.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젊은 학자들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쓴 학위논문이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니 귀국해서도 처음 몇 년간은 한국경제의 문제를 다룰 생각을 못하게 되지요. 국제적인 저널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분석한 논문을 잘 안 실어주잖아요? 그런 논문을 써서 일류 저널에 실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분야로 빠져들게 되지요.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한 사람을 일류학자로 평가해 주니까 우리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도 있어요. 한국경제의 문제를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 경쟁에서 불리하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경제의 문제를 다루는 학

자들은 일류가 아니라는 그릇된 평가가 생긴 것이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 이런 모순은 앞으로 고쳐질 것이라고 봐요. 벌써 우리 문제를 다룬 훌륭한 연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질문자 답변)** 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도 그러한 점을 깊이 인지하고 이번에 모금한 재원을 기금으로 해서 한국경제학술상을 제정해서 매년 우수 학자를 선정해 상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문제를 다룬 우리 학자들의 연구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두 편을 선정해서 시상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질문)** 선생님 말씀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경제학자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대로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용이나 승진 또는 정년 보장 심사 시 학술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로 평가하는 현재의 양적 평가 방식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논문의 질보다는 수로 평가하는 소위 객관적 평가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발표되는 학술논문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학교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를 받는 기준이 되다 보니 학술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실기 위해 경쟁하게 되지요.

경쟁은 좋은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원래는 소수의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약은 것인지 학술재단에 등재하는 학술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등재학술지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학회를 세우는 일도 생기고요. 내년 2월에 열리는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 61개의 경제 관련 학술단체가 참가하는데 우리 학계에 이렇게 많은 학회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공동학술대회 문제는 한국경제학회가 그 모 학회로서의 위상이 있는 만큼 본령에서 이탈하는 학회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 안에 공동학술대회 참가학회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학회든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심사에 통과되어 초청 받은 학회만 선택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보는 것은 어떨지요?

경제관련 학술지가 난립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 회장이 우려하는 바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심사제도의 엄격화, 운영방식의 합리화, 편집방법의 세련화 등을 통해서 학술지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우수한 저널에 기고할 만한 실력을 갖춘 학자들이 많은 만큼 한국경제학회 기관지부터 국제적 수준의 저널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도록 더욱 노력 해 주기 바랍니다.

## 한국의 대학 교육

**질문)** 선생님께서는 지난 10월에 「광복 70년과 대학교육 발전」이라는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래요. 2015년이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대학총장 협의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광복70년과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내가 그 기조강연을 맡았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걸 여기에서 모두 소개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해방 후 국립대학을 설립한 이후라고 봐요. 해방 전에는 대학이라고는 경성제대 하나밖에 없었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아요. 물론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관립, 공립 및 사립 전문학교가 다수 있었지만 그들은 정규 대학이 아니었어요. 1946년에 국립대학설립안이 공포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대학이 골격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등교육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설계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미국 식 제도를 많이 따랐지요. 일본은 독일 식 제도를 답습해서 대학을 세웠는데 패전 이후 미국 식 제도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용이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본의 대학에는 독일 식 제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무에서 시작했으니까 미국 식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지.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 대학의 주축을 이루던 때여서 일본 식 시스템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반일 감정이 그것을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학교육을 담당했던 주도 세력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온 과정은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아요. 일본대학에서 교육받은 제1세대, 그들에게서 교육받은 제2세대, 해외 특히 미국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제3세대, 이 제3세대에 그들에게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력이 가세한 제4세대가 그것이지요.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일본도 성공하지 못한 대학개혁을 한국이 먼저 이루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세력이 제3세대 학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대학이 지닌 과제에 관해서도 말했는데 내가 지적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대학의 다양화, 대학의 특성화, 주요 국립대학의 법인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균형 찾기, 학부교육의 중요성 재인식, 과열된 입시경쟁 지양, 대학원교육 강화, 대학재정 자립, 대학평가 제도의 합리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균형 찾기를 강조한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나머지 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이 갖는 중요성을 경시하게 된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교수 평가에서도 연구업적만 중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연구와 훌륭한 교육 모두 중요합니다. 대학이 단순히 전문 지식만 전수하는 기능양성소가 아니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려면 교수들 모두가 참다운 애정으로 바른 후학들을 길러내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잘 못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개

선 방안이 없지 않나요? 연구를 못하면 도태되지만 교육을 못해도 쫓겨나지 않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것이지만 특히 학부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대학의 사정을 듣자 하니 업적이 뛰어난 교수들이 학부교육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젊은 교수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게 시간낭비라고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이 회장이나 이 회장 동년배들처럼 연륜이 있는 교수들이 학부 교육을 담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장 스승인 시카고대학의 베커교수도 내가 알기로는 University Professor로서 학부 학생들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지요? 대학 교수가 스승의 길을 버리고 고급 지식만 전수하는 기능인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영미에서처럼 아주 수준 높은 인문학 대학(liberal arts college)이 생기면 좋을 텐데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그리고 대학원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해요. 학부 교육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대학원 교육은 아직 멀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놓고 보아도 대학원 석사과정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 하지만 박사과정은 어쩐지 아직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면 용서해 주시지요. 학부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제자들을 외국의 대학교로 보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면 교육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후학을 양성하지 못한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일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 몇 분야에서는 세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야에 세계 각국의 영재들이 모여 와서 누구나 인정하는 뛰어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최빈국에서 고소득국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깊이 연구한다면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 가운데서 훗날 노벨상을 받을 만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할 사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일본의 학문 풍토에서 배울 바가 많아요. 일본의 학문 수준을 알잡아 보면 안 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우리는 영미 식, 독일 식, 북구 식, 일본 식, 중국 식 등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들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우리 전래의 것을 활발하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한국 식 학문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자 답변)** 선생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이 선생님 말씀에 공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견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